



# “저출산 해소, 부영그룹이 힘이 되겠다”



### 이중근 회장, 저출산 해결 앞장서... 어린이집 시상식·원장회의 개최 ‘부산신호 1차 부영 사랑으로’, ‘제주삼화 7차’ 등 7개원 ‘우수’ 선정

최근 출산장려금 70억원을 지급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지난 19일 보육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했다.

부영그룹은 매년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해 당해 연도의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우수 어린이집 선정은 운영자 협약서 이행실적, 영유아 복지, 운영자 전문성, 수상실적, 운영자의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영그룹은 영유아 보육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은 부산신호 1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부산신항 4단지과 부산신항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제주삼화 7차, 부산신항 3단지, 진

주포레스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제주삼화 5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차지했으며, 수상한 어린이집에는 표창장과 상금, 기념품 등이 제공되었다.

이날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원장회의에서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지난해 성과와 평가를 보고하고 올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운영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 ‘안심 어린이집’으로 지역사회와 지자체는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다. 부영그룹은 사내에 보육지원팀을 두고 무상으로 보육행사,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다자녀 입학금 지원, 개인지원금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각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시장상, 도지사상, 시의장상, 군의장상을 포함한 115개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 보육기관으로서 명성을 공인 받고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시 소재의 한 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18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그간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강 선임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 그동안 7단계 제도개선을 거쳐 총 4741건의 중앙행정권한과 특례부여 등을 이양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성과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분권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설계 및 출범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정부자치분권 전국 확대의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자치경찰제 전국확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등의 경험사례를 반영했다.

또 관광3법 이양, 외국인 무비자 입국, 면세점 등 제주형 관광기반을 구축했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기업친화적인 투자활성화 제도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제주여건에 기반한 특례활용 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했는데, 대표적인 성과로는 청정과 공존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제주 조성, 제주지하수 등 공공자



원의 공익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도 문제점 등이 나타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단계별 제도개선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매년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체계적인 타당성 등 설득논리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 저하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선임연구원은 “기회의 섬과 품요의 섬으로 제도약이 필요하며 제주는 사무와 권한 이양에 수반되는 재원은 요구하되 그 이상은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자립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약화, 주민 참정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주권 강화 측면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통해 도민이 결정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김남규씨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제주의 김남규(사진) 서예가가 제4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분 우수상(한글서에 분야)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는 최근 진행된 ‘제4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분’ 최종 심사결과 수상자 명단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에 따르면 김 서예가는 이번 수상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분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했다.

김 서예가와 더불어 한글서예분야에서 김양선·김리라 작가는 특선, 문병수·양진호·이계화·이순정 작가는 입선을 받았다.



## 신평리 산물곶 생태 탐방로 정비 봉사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청년회(회장 김경필)와 부녀회(회장 양영애)는 최근 신평리 산물곶에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통해 생태 탐방로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 제주농협 마늘 수확기 전 포전 상황 점검

제주농협본부와 대정농협은 마늘 수확시기를 앞둔 지난 18일 대정지역을 방문, 마늘 포전을 둘러보며 생육 상태를 점검했다.

마늘 수확은 5월 10일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수확은 5월 15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농협은 마늘 수확봉사에 참여할 인력 5000명 모집을 목표로 도내 주요 기관 및 단체·기업 20여 곳에 일손돕기 참여 협조문을 발송했다.

참여 신청은 5월 16일까지 받는다. 제주농협은 수확



시기에 맞춰 대정지역에서 마늘 영농지원 밭대식을 개최, 마늘 수확을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19일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문상의 (사)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장을 비롯해 김애숙 정무부지사, 김경학 도의회의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장한장애인대상, 장애인어버이대상, 장애인도우미대상(개인·단체), 장애인복지특별상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장한장애인대상 양승혁 씨 장애인어버이대상 문재심 씨 장애인도우미대상 개인 부문에 김대주 씨 단체 부문에는 친구체육자원봉사단 장애인복지특별상에는 이영림 씨와 현순열 씨가 수상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20408-중-137650」

# Jeju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유효기간 2023년 1월 18일 ~ 2027년 1월 17일



한리일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 정형외과 중점 진료

관절경, 인공관절, 족부족관절, 어깨 등 진료



###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

24시간 분만실, 신생아실 운영



### 사회적 가치실현

ESG경영,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 심뇌혈관센터 운영

24시간 응급심혈관 시술 가능

대표전화 | 730-3100

※ 이 광고는 제220408-중-137650호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을 받은 내용입니다.